

「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」 제5차 회의 개최

- 3.30일~4.27일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10.0조원(체결기준)
- 국고실장, “5월 WGBI 자금 유입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할 것”

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'26.4.29.(수) 10:0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*」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WGBI 편입 이후 4월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기관: 재정경제부(반장: 국고실장)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탁결제원

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체결기준 총 10.0조원(3.30일~4.27일), 결제기준 7.9조원(4.1일~4.27일)*이다. WGBI 편입을 계기로 연기금 등 장기보유 성향의 투자가 커지고, 증장기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.

* 채권의 경우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간 시차가 존재(당일~최대 30일)하여, 거래 체결 기준과 결제 기준간 차이 발생

황 국고실장은 “4월 한 달간 글로벌 투자자들과 우리 시장 인프라가 서로 호흡을 맞추어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”고 평가하며, “5월 WGBI 편입비중 상승에 맞추어 금주부터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”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.

정부는 앞으로도 「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」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을 지속함으로써 투자자와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국고실 국채시장과	책임자	과 장	이재우 (044-215-51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민 (pymwm@korea.kr)
금융위원회	금융국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인욱 (02-2100-2856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찬 (kimkchant@korea.kr)
한국은행	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	책임자	팀 장	최재혁 (02-759-5773)
		담당자	과 장	임준혁 (jh.lim@bok.or.kr)
금융감독원	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	책임자	팀 장	박세혁 (02-3145-7590)
		담당자	조사역	박기택 (pkt@fss.or.kr)
한국예탁결제원	글로벌본부 글로벌금융부	책임자	부 장	최순돈 (051-519-1815)
		담당자	팀 장	최극진 (kjchoi@ksd.or.kr)

